

아메리카의 유토피아

페드로 엔리케스 우레냐

❖ 해제

이 글 「아메리카의 유토피아」(La utopía de América)는 20세기 초반 라틴아메리카 지성인들의 역사관과 세계관을 잘 드러낸 명문으로 평가 받는다. 혼종, 혼혈을 강조하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라틴아메리카의 전통을 주로 유럽의 전통에서 찾고 있어서 비판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엔리케 로도의 『아리엘』에서부터 시작된 고매한 정신의 추구, 스페인 전통의 인문 정신 찬양, 찬란한 미래 비전의 제시가 당시 지성계에 얼마나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페드로 엔리케스 우레냐(Pedro Henríquez Ureña, 1884-1946)는 카리브 해에 위치한 도미니카공화국의 수도 산토도밍고에서 출생했다. 명문가에서 태어난 엔리케스 우레냐는 일찍부터 조국을 떠나 미국에서 수학하였으며, 멕시코 등 아메리카 대륙 전역을 돌아다니며 문필 활동을 하며 당대를 풍미했다.

1921년 당시 멕시코 교육부장관이던 호세 바스콘셀로스는 미국에 거주하던 엔리케스 우레냐를 불러들여, 멕시코대학교 교수로 임명했다. 일 년 후인 1922년, 아르헨티나 대통령 취임식에 바스콘셀로스와 함께 멕시코 경축사절단으로 파견되었다. 이 때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라플라타대학교에서 개최된 멕시코사절단 환영행사(10월 14일)에서 엔리케스 우레냐가 강연하였는데, 그 원고가 바로 여기에 소개하는 「아메리카의 유토피아」이며, 1925년 동명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출처: Pedro Henríquez Ureña, *La utopía de América*, Caracas: Biblioteca Ayacucho, 1978 pp. 3-8.

저는 멕시코대학교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¹⁾ 멕시코 대학교가 제게 공식행사의 대표라는 자격을 부여하지도 않았지만, 저 또한 제가 발표할 내용에 대해 대학교에 책임을 전가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멕시코에 대해 길게 언급하면서 본 연설을 시작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멕시코는 제 고향 산토도밍고처럼 잘 알고 있어서, 논문 쓸 때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멕시코는 지금 역사상 가장 활력 있는 순간에 있습니다.²⁾ 즉 위기인 동시에 창조의 순간에 있다는 말입니다. 멕시코는 지금 과거의 행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유구한 전통 가운데 무엇이 멕시코를 외견상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위험으로 끌여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떤 역량이 멕시코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갈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고유한 특성이 새로운 문명유형을 창출하기에 적합하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멕시코는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아메리카에 대해 습관처럼 신생국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멕시코를 신생국가가 아닌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로 얘기하는 걸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멕시코는 스페인의 긴 지배에도 불구하고 토착 원주민의 유산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미약해지긴 했지만, 모든 사물과 모든 종류의 행적에서 유구한 전통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신세계의 유일한 국가가 바로 멕시코입니다. 광산업에서부터 직물제조업까지, 천문을 이용한 농작물재배에서부터 고전문학의 연마까지, 회화에서부터 음악까지, 우리는 멕시코의 모든 것에서 전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에서 유행하고 있는 민중예술 전시회를 가 본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그곳에 표현된 다양한 전통 중 무엇인가를 발견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자기를 보자면, 현재 탈라베라(Talavera) 도자기라고 알려진 신세계의 대표적 자기인 푸에블라 도

1) 이 글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라플라타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이다—옮긴이 (이하 모든 주는 옮긴이의 것이다).

2) 멕시코혁명(1910-1920) 직후의 상황을 가리킨다.



쿠바에서 강연하는 엔리케스 우레나

자기부터, 검정 바탕 위에 하얀 색으로 원시적인 그림들을 그려 넣은 테
오티우아칸 도자기, 그 지역 풍경처럼 노란 바탕에 붉은색과 푸른색이 어
울린 과나후아토 도자기, 진홍색 바탕에 백색 또는 흑색으로 식물을 장식
한 아구아스칼리엔테스 도자기, 하얀 대지 위를 날고 있는 푸른 나비와
노란 꽃이 인상적인 오아하카 도자기, 그 지역에서 채취한 점토에 모든
종류의 선과 색채로 맘껏 멋을 부린 할리스코 도자기까지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은 멕시코의 전통 중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푸에블
라, 케레타로, 오아하카, 모렐리아, 메리다, 레온과 같은 멕시코의 오래된
도시를 방문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도시가 스페인의 자매 도시와 어
떻게 닮았는지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빌라나 톨레도처
럼 아주 오래된 도시를 제외한다면, 스페인의 도시 또한 중세적인 특징보
다는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6세기와 18
세기, 바로 멕시코의 오래된 도시가 건설된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
리면, 멕시코의 도시 특히 수도 멕시코시티는 아스테카, 식민, 독립이라
는 세 가지 요소가 끊임없이 투쟁해 만들어 낸 결과물입니다. 멕시코인의

삶에 영향을 끼친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자극 사이에서, 백 년 동안 갈등하고 조화하며 찾아 낸 균형이 만든 특별한 상징이 바로 멕시코시티인 것입니다.

멕시코는 오랜 기간 다소 미개했고, 토대까지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격변을 겪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때문에 멕시코는 미래를 건설할 때 유용할 과거와 현재의 유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엇을 지속시키고 무엇을 확장시키느냐에 따라, 멕시코 자신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문화를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유산은, 영사기와 전신기의 선정적인 왜곡을 통해서만 멕시코를 바라볼 뿐 진정한 멕시코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모순된 것은 아닙니다. 변덕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에 대해 원주민 놀이라고 비아냥대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한 희망사항도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토속적인 것은 멕시코에서 하나의 현실입니다. 토속적인 것은 멕시코의 모든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원주민적인 뿌리입니다. 모렐로스 가문, 후아레스 가문, 알타미라노 가문, 이그나시오 라미레스 가문 등이 모든 것이 바로 토속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그것은 식민 시대 초기부터 멕시코에 스며든 스페인 전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멕시코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타스코나 테포스틀란의 건축가들이 만든 바로크 건축물이나, 후안 루이스 데 알라르콘의³⁾ 작품에 스며있는 로페 데 베가(Lope de Vega)나 티르소(Tirso)의 희곡처럼 말입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멕시코는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러한 수단이 바로 문화와 민족주의입니다. 하지만 19세기 방식으로는 문화와 민족주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주의의 탈을 쓴 자본의 시대에 지배적인 문화,

3) 후안 루이스 데 알라르콘(Juan Ruiz de Alarcón, 1581?-1639)은 식민시대 멕시코 출신으로 스페인에서 활동한 황금세기 극작가이다.

즉 배타적인 소수의 딜레탕트 문화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짜 꽃만을 재배하는 폐쇄적인 과수원, 박물관처럼 죽은 학문만을 보존하고 있는 상아탑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인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 노동에 기초한 사회적 문화를 생각 하십시오. 학습은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똑같이 행동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급문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중문화(cultura popular)가 없는 곳에서 고급문화란 가짜요 덧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민족주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현재까지 정치적 민족주의가 도덕적 명분을 갖는 유일한 순간은 외부의 위협에 대항해서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려 할 때뿐입니다. 각 민족이 갖고 있는 특징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획일화하려는 외부의 위협 말입니다. 다른 민족주의를 생각 하십시오. 각 민족의 장점을 예술과 철학으로 승화시키는 정신적 민족주의 말입니다. 이곳에서 개최된 세계 학생 대회에서 술잔과 시(詩)의 민족주의라고 해학적으로 불렀던 바로 그 민족주의 말입니다.

지금 이상적인 민족주의의 모습이 멕시코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묘 교육은 순수하게 멕시코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화가 겸 미술 선생님인 아돌포 베스트 마우가드(Adolfo Best Maugard)는 소묘를 막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이들에게 적용할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창조·보급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교육방식인 진부한 모델을 기계적으로 베끼는 것을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멕시코 민중예술의 토속적인 특징인 7개의 선들, 즉 직선, 점선, 원, 반원, 물결 모양, S자 모양, 나선 모양을 멕시코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멕시코 예술의 전통적인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는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두 개의 선을 교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멕시코를 토착문화국가로 언급할 때 다른 아메리카와 분리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모든 아메리카는 많긴 적긴 간에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메리카의 모든 국가가 맥

시코만큼 풍부한 전통을 지니고 있지는 않더라도 말입니다. 사백 년의 스페인 통치는 우리 아메리카에 다른 곳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을 부여했습니다.

동일한 역사, 정치와 지성에서의 동일한 목적은 우리 아메리카를 거대한 하나의 국가처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똑같아지도록 예정된 국가들의 연합으로 만든 것입니다. 만약 아메리카의 어떤 도시라도 아테네로 불렸던 조상들의 순수한 용맹성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아메리카를 고대 그리스 또는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와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론 분리되었지만 정신적으로론 하나였던 민족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로부터 분열은 재앙이라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아메리카의 운명, 문명화의 미래를 믿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기 위해 현재의 풍부한 물질이나 미래의 발전에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산티아고, 발파라이소, 로사리오처럼 산업화의 열정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믿음에 기대지도 않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도시들은 우리가 매일 매일 경쟁을 하도록 내몰린다면, 우리 민중도 미국만큼이나 짧은 시일 내에 거대한 별집, 유럽과는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건설할 줄 알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리오데자네이로에서는 감히 북미의 도시에선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한 아직은 불충분하기만 한, 아메리카가 세계 문명에 정신적으로 기여한 유산에 기대지도 않습니다. 비관주의자들이 유치하게 비난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섭니다. 아무리 멕시코의 식민시대 건축물과 아메리카의 현대 시 및 민중예술이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단지 사실에 토대를 둘 뿐입니다. 문명의 위기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정신이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오직 정신만이 외관상 더 강력해 보이는 요소들에 투쟁해 왔습니다. 불리바르는

가장 크게 낙담했을 때, 만약 라틴아메리카 민중은 카오스로 되돌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역사 연구자들에 의하면, 중앙아프리카는 그리 멀지도 않은 시간에 조직적인 창조문명사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해체된 사회로 변모했다고 합니다. 이웃의 탐욕에 쉽게 넘어가 사회가 해체되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끊임없는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사르미엔토는 『문명과 야만』에서 계몽과 무질서, 문명과 야만 사이에서 벌어지는 우리들의 투쟁을 예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만은 오랜 기간 무력을 지녔지만 정신은 기적처럼 끈질기게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사르미엔토, 알베르디, 베요, 오스토스 같은 정신적 스승은 때때로 독립영웅보다 더 위대한 민중의 구원자입니다. 가끔은 인간들 스스로가 우리들 정신의 진정한 대표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서재에 파묻혀있는 작가에게 교육적인 능력을 요구합니다. 호세 엔리케 로도처럼 작가는 충분한 능력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은 지식인들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에서 정신이 내부의 야만을 극복하고 승리했다면, 우리는 외부의 야만이 정신을 굴복시키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무력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무력은 항상 잠깐입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영역을 확장시켜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편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작업도구를 줘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정의와 진정한 자유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유토피아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유토피아를 향해서? 맞습니다. 우리는 고대의 이상을 새롭게 다듬어야 합니다. 유토피아는 유치하고 헛된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들처럼 거대한 바다를 지녔던 지중해의 조상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정신의 작품입니다. 그리스 민족은 서구 세계에 지속적인 완성을 욕망하도록 만들

었습니다. 개인은 현재의 자신보다 더 좋은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 인간은 현재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그 방법을 찾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교했으며, 쉬지 않고 모색하고 실험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종교와 전설, 사회적 체계와 정치적 시스템을 다뤘습니다. 그들은 토론을 하고 비평을 만든 민족입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역사를 만들었으며, 미래를 바라보고 유토피아를 만든 것입니다.

고대 오리엔트는 안정적인 사회조직을 우선했습니다. 질서를 위해 정의는 희생되었고 평정을 위해 진보를 희생시켰습니다. 페르시아인들 속에서 아후라마즈다(Ahura Mazda)가 승리했을 때나 유대인들을 위해 메시아가 출현했을 때처럼 그들이 완성과 개선에 대한 희망을 가졌을 때조차, 그들을 인간의 노력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격리시켰습니다. 완성과 개선을 실현하는 것은 더 높은 곳에 있는 자, 즉 신의 의지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삶의 완성을 믿었습니다. 아테네는 유토피아를 창조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아무도 아리스토파네스보다 뛰어나게 유토피아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유토피아를 풍자한 시인은 유토피아를 이해할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호감을 보여 화려하게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의 조롱이 있는 지 얼마 후, 플라톤은 철학과 문학의 위대한 걸작 중의 하나이자, 유토피아라는 독특한 예술에서도 걸작으로 꼽히는 『국가론』을 창조합니다.

고전 정신의 환영이 르네상스로 유럽에 투영되었을 때, 유토피아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부터 유토피아의 개념은 비록 침식당할지언정 결코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인간성이 흔들리는 거대한 혼란 속에서도 단 하나의 빛이 많은 정신을 단결시키고 있습니다. 유토피아의 빛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빛이 이 순간 경제적으로 단순한 해결책을 묶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사회적 지옥 속에서 평화에 대한 유일한 희망을 어슴푸레하게나마 발견할 수

있는 곳은 결국 유토피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유토피아에게 인간적이고 정신적인 특성을 완벽하게 돌려주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개혁과 경제적 정의를 이루려는 것이며, 경제적 약탈의 해소가 개인과 사회의 완전한 자유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⁴⁾ 다음의 유일한 규범이 이성과 심미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우리의 유토피아 안에서 완벽하게 인간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어 있는 경제적 부조리와 도덕적·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게 될 테니까요. 자유로운 인간은 지성과 감성의 훈련을 통해서 정신의 네 가지 바람에 개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유토피아를 민족주의와 조화시킬까요? 어떻게 보편적 인간을 출현시키도록 예정되어 있는 유토피아와 전술한 민족주의, 즉 술잔과 시의 민족주의를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조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전에는 그 반대였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아메리카가 갈망하는 보편적 인간은 차이를 없애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차이를 좋아하고 다양한 색조의 가치를 평가할 줄 아는 아메리카의 인물일 것입니다. 이웃의 땅이 아닌 아메리카의 대지는 그에게 토속적인 맛의 기쁨을 줄 것입니다. 아메리카의 대지를 통해 그는 독특한 맛, 고유한 특질이 지닌 다양성을 향유하게 될 것입니다. 보편성은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유토피아의 세계에서는 기후와 언어, 전통의 차이에서 유래된 특징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차이가 분열과 무질서를 의미하기 보다는, 인류를 단결시키는 다양한 색조로서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척박한 제국주의의 이상인 획일성은 결코 이루지 못하는 단결, 바로 민족의 다양한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단결 말입니다.

우리는 아메리카에 조만간 보편적 인간이 창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4) 이 구절(neminem laedere)은 로마법의 근본 정신으로, 키케로의 『필립피카』에 나오는 말이다.

의 입을 통해 장애 없고 편견 없는 정신을 자유롭게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아메리카의 모든 지역이 고유하고 다양한 특징, 특히 예술 분야의 특징을 보존하고 완성하기를 기대합니다. 나날이 독창성이 인정되는 우리의 문학작품에서, 크건 작건 지역별로 다양한 미술작품, 즉 스페인과 토속이라는 두 겹의 전통이 새로운 흐름 안에서 융합된 작품에서, 그리고 천재음악가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는 음악들, 그들이 만들어낸 다양하고 새로운 체계를 미래에는 경이롭다고 인정할 음악작품들에서, 아메리카 고유의 특징을 보존하고 완성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아메리카 고유의 위대한 특징이 될 작품이 계속 생산되기를 바랍니다. 아메리카 문명의 상징으로서 두 개의 경향을 합치고 종합하고 조화롭게 보존한 작품 말입니다. 우리는 스승을 기다리며 진정한 현대의 영웅들을 기다립니다. 아메리카 정신에 대한 말씀과 정신적 삶의 창시자들을 기다립니다.

[김용호 해제 및 번역]

김용호 - 서울대학교 강사